



프랑스의 아시아 연구: EFEO의 성립 및 활동과 관련하여*

윤대영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프랑스의 아시아 연구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발전하게 된 것일까? 이 글은 프랑스에서 바라보던 아시아를 프랑스령 인도차이나(Indochine Française) 시기 EFEO의 성립 및 활동과 관련하여 통시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제기해 볼 수 있다. 첫째, 프랑스의 전통적인 아시아 연구 기관들은 어떠한 배경과 목적에서 등장했을까? 둘째, 1898년부터 등장한 EFEO는 1954년까지 기존의 아시아 연구 기관과 어떻게 연계되면서 자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의 대표적인 아시아 연구 기관 중의 하나로 점차 자리를 잡게 된 것일까? 셋째, 아시아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려는 연구자들과 연구 기관은 당시 EFEO의 연구 인프라와 내용 등을 통해 어떠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까?

주제어 프랑스, 아시아, 프랑스 극동 연구원, 베트남, 통아시아

I. 머리말

필자는 1999년 9월부터 2007년 2월에 걸쳐 고등연구실용학교(EPHE: École Pratique des Hautes Études)의 역사문화학과와 파리 7대학의 동아시아언어문명학부(Langues et Civilisations d'Asie Orientale)에서 프랑스의 아시아 연구를 경험할 수 있었다. 특히, EPHE의 도서관, 국립동양어대학(INALCO: Institut National des Langues et Civilisations Orientales)의 도서관, 프랑스 극동 연구원(É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이하 'EFEO'로 약함)의 도서관, 국립도서관(BN: Bibliothèque Nationales), 각종 아카이브 센터, 콜레주 드 프랑스(Collège de France)와 아시아 학회(Société Asiatique)의 도서관 등지에는 수많은 아시아 관련 자료들이 축적되어 있다. 그리고 콜레주 드 프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6A3A02065553).

랑스의 동양학 도서관과 정원은 국립고문서학교(Ecole Nationale des Chartes) 출신의 ‘샤르티스트(chartistes)’들이 다양한 나라에서 온 아시아학 연구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프랑스와 ‘인접한 동양(Proche-Orient)’이나 ‘극동(Extrême-Orient)’을 간접적으로나마 이해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이기도 하다.

그러면 과연 프랑스의 아시아 연구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발전하게 된 것일까? 이 글의 목적은 프랑스가 바라보며 연구하던 아시아를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시기(Indochine Française, 1887~1954) EFEO의 성립 및 활동과 관련하여 조망해보는 데에 있다. EFEO는 1898년에 창설되어 제1차 인도차이나전쟁으로 베트남이 독립하는 1954년에 이르기까지 식민지 인도차이나와 인근의 아시아 지역을 연구하던 프랑스 제국주의의 연구 기관이었다. EFEO에 대한 최초의 연구는 설립 20주년을 기념하는 형태로 EFEO의 설립 배경과 인도차이나 총독 두메르(Paul Doumer)의 역할, 초기 연구의 성격과 연구자들의 활동, 새롭게 현지에서 조성된 도서관과 박물관 등을 소개했다(EFEO, 1921). 그리고 이후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의 존립이 현지의 독립운동으로 위기를 맞고 있었을 때, EFEO의 50주년을 ‘축제의 장’이었을 뿐이었고, 75주년을 EFEO의 아시아 연구와 방법론을 소개하는 계기였다(Pacific Affairs, 1952; Clémentin-Ojha et Manguin, 2001: 8). 이처럼 세 차례에 걸쳐 EFEO 관련 소개와 기념행사가 있었지만, 주로 20~25년 동안의 단계별 성과를 모으는 데 그쳤고, 2001년이 되어서야 100년간의 역사를 정리하려는 작업이 미약하나마 시도되었다(Clémentin-Ojha et Manguin, 2001). 그런데 이러한 EFEO 내부의 제한적인 자체 연구를 비판하며 ‘식민학(science coloniale)’의 관점에서 EFEO의 사회사와 정치사를 규명하려는 노력도 나타나게 되었다(Singaravélou, 1999). 국내에서는 프랑스의 한국 문학 연구자와 프랑스사 연구자가 EFEO의 발전 과정에 대해 접근했지만, 이 두 연구는 EFEO의 아시아 연구를 중국, 일본, 한국 등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도 적지 않다(Bouchez, 1995; 권윤경, 2018).

그래서 필자는 우선 장기적인 관점에서 프랑스의 다양한 아시아 연구 기관들이 등장하는 배경과 목적이 EFEO의 설립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과정을 파악하고자 한다. 1898년부터 등장한 EFEO는 1954년까지 기존의 아시아 연구 기관과 어떻게 연계되면서 자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의 대표적인 아시아 연구 기관 중

의 하나로 점차 자리를 잡게 된 것일까? 그리고 EFEO가 제국주의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식민 정권과 ‘공모’했다고 평가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 기관의 활동과 연구 성과에 드러나는 다양하고 미묘한 ‘뉘앙스’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마지막으로 현재 아시아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려는 연구자들과 연구 기관은 당시 EFEO의 연구 인프라와 학문적 성과 등을 통해 어떠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들을 이해하기 위해, 이 글의 II장은 우선 프랑스의 아시아 연구 기원과 EFEO의 성립 과정을 연계하여 파악한다. 그리고 III장에서는 베트남이 프랑스의 식민지로 전락한 이후 1898~1954년 시기의 EFEO의 활동을 본국과 연계된 조직적인 움직임, 역대 원장 및 연구원의 이력, EFEO의 학술지 *Bulletin de l'É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이하 ‘BEFEO’로 약함)에 게재된 연구 성과의 성격, EFEO 소속 현지 연구자들의 움직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아시아 연구의 기원과 EFEO의 성립

1. 아시아 진출과 연구의 기원

인도에 전초 기지를 마련했던 포르투갈의 믈라까(Melaka) 점령(1511)으로, 이후에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도 동남아시아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각국은 거래 품목을 찾는 유럽 동인도회사 선박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았다(Lawson, 2013). 그리고 이러한 서구의 아시아 진출과 교류의 범위는 인도에서 동남아시아로, 동남아시아에서 동북아시아의 중국, 한국, 일본 등지로 확대되었다. 이 과정에서 1664년에 정치가 콜베르(Colbert)가 재편성한 프랑스 동인도회사(La Compagnie Française des Indes Orientales, 1604년 설립)는 인도 동부 연안 북쪽의 샹데르나고르(Chandernagor)와 남쪽의 뽕디쉐리(Pondichéry)를 근거지로 만들면서 세력을 확대해 나갔다. 그리고 결국 1684년에는 프랑스 동인도회사가 현재의 하노이(Hà Nội)에서도 활동을 개시하게 되었다(Mole, 2016: 24, 28; 윤대영 외, 2013: 94).

이러한 상황 속에서, 16세기부터 ‘아시아(Asie)’라는 지역명이 표시된 저술이나 지도가 프랑스에서 등장하기 시작했다. 1530년대부터 등장한 저술들은 세계를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등 3개의 지역으로 분류하여 바라보았는데, 특히 씨뇨(Jacques Signot)의 『세계의 분류: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지역의 선포(*La Division du Monde, Contenant la Déclaration des Provinces et Régions d'Asie, Europe et Africque*)』는 1590년까지 5차례에 걸쳐 재간되기도 했다(Signot, 1539; Boemus, 1547; Le Gendre, 1550). 아울러, 1550년대부터 인도 중심의 아시아 지도가 출현하기 시작했는데, 17세기에 들어서는 소아시아, 아랍 세계, 페르시아, 인도, 동남아, 동북아 등지를 포괄하는 지도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아시아 자체의 역내 지역(subregion) 구분도 점점 구체적으로 묘사되었다(Münster, 1552; Nolin, 1657-1699).

또 하나의 중요한 현상은 기독교의 전파였다. 동남아시아에 진출한 포르투갈과 함께 들어온 선교사들은 도서부 동남아시아에서 무력으로 따라 일본까지 들어갔다. 그러다가 17세기에 들어 일본에서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자, 중국과 베트남이 새로운 선교지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프랑스의 아비뇽(Avignon) 출신으로 예수회 신부였던 로드(Alexandre de Rhodes, 1591~1660)는 1624년에 베트남 중부의 호이 안(Hôï An)에 도착해서 현지어를 배운 후에 북쪽으로 가서 본격적인 선교 활동을 했다고 한다(최병욱, 2016: 186).

17세기 이래 예수회 및 파리와방전교회 선교사들의 아시아 선교와 맞물려 있는 현지 연구나 현지 소식지도 주목할 만하다. 예수회의 베트남 지도 간행 이외에도, 로드 신부는 베트남어를 로마자로 표기하는 체계를 고안하여 1651년에 『안남어-포르투갈어-라틴어 사전(*Dictionarium Annamiticum Lusitanum et Latinum*)』과 『교리문답서(*Catechismus*)』를 간행하게 되었다(Compagnie de Jésus; Rhodes, 1651; Rhodes, 1854: vi). 그리고 선교를 위해 1822년에 리용에서 설립된 전교회(L'Œuvre de la Propagation de la Foi)는 전문 잡지를 통해 아시아 선교 지역의 소식을 본국에 보내기 시작했다. 전교회가 설립된 해에 등장한 『전교회 연보(*Annales de la Propagation de la Foi*)』(1822~1969)는 격월마다 회원들에게 선교지 소식들을 전하며 기도와 후원을 독려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후 1868년에 전교회는 보다 신속하고 다채로운 정보를 바라던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주보 형식의 새로운 잡지 『가톨릭 전교회(*Les Missions Catholiques*)』(1868~1964)를 창간했다. 『전교회 연보』

가 격월마다 각 선교지에서 보내온 편지들을 편집하여 소개한 단순하고 소박한 형태의 잡지였다면, 『가톨릭 전교지』는 주간마다 생생한 선교지 소식들을 전하면서 『전교회 연보』가 담지 못한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주제들, 가령 선교지 별 역사와 풍속, 문화, 학문, 진기한 풍물 등을 다룬 잡지였다.

18세기 중반에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 원료를 구입하고 생산품을 판매하기 위한 시장의 확보가 필요해짐에 따라, 유럽의 나라들은 19세기를 전후해 식민지 확대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19세기 초반에 프랑스는 마르띠니크(Martinique), 과달루프(Guadelupe), 생뵈에르에미끌롱(Saint-Pierre-et-Miquelon), 기아나(Guiana), 그리고 레위니옹(La Réunion) 섬, 인도의 5개 지역¹ 등에 산재해 있는 식민지 몇 개를 가지고 있을 뿐이었으나, 1830년의 알제리 원정을 시작으로 근동(近東)의 아프리카 지역으로 식민지 경영이 본격적으로 확대되었다. 이후, 가톨릭교회, 상공업, 해군 등의 요구로 적극적인 팽창 정책을 추구하던 나폴레옹 3세(1852~1870 재위)는 베트남 응우옌(Nguyễn) 왕조(阮朝, 1802~1945)의 천주교 탄압을 구실로 베트남을 본격적으로 식민지화하고자 했다(윤대영 외, 2013: 24).

이러한 상황에서, 프랑스의 학계에서는 아시아를 둘러싸고 어떠한 동향이 나타나고 있었을까? 당시의 주요 연구 기관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6세기 초부터 유럽의 주요 대학들은 아랍어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대표적인 기관이 콜레주 드 프랑스(1870년에 현재의 이름으로 바뀐)였다.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좌우명을 신조로 삼았던 ‘왕립 학교(Collège Royal)’의 후신 콜레주 드 프랑스는 인문주의자(humaniste) 뷔데(Guillaume Budé, 1467~1540)의 제창으로 1530년에 프랑수아 1세(François Ier, 1515~1547 재위)가 창설한 교육 연구 기관이다. 이 기관은 현재 파리 5구 라틴가(Quartier Latin)의 중심 마르셀랭-베르트로(Marcelin-Berthelot) 광장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문학, 과학, 예술의 모든 영역’이 교육과 연구의 대상이었다. 높은 수준의 무료 강의가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제공되었고, 강단에 서는 사람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커다란 영광이라고 생각했다. 그리스어와 히브리어 두 강좌로 시작된 강의는 1530년

¹ 시대순으로 예를 들면, 트랭꼬말(Trincomale, 1673), 뽕디쉐리(1674), 샹데르나고르(1675), 마헤(Mahé, 1725), 까리깁(Kârikâl, 1739)이다.

에 다섯 강좌로 늘어났고, 1538년에는 외교적인 필요성 때문에 동양어(*langues orientales*) 강의가 추가되었는데, 언어학자 뽀스텔(*Guillaume Postel*, 1510~1581)의 아랍어 교육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Corvol*, 2010). 그리고 1658년에는 의사이면서 동양학자(*orientaliste*)였던 바피에르(*Pierre Vattier*, 1623~1667)가 폴레주 드 프랑스의 아랍어 교수가 되었고, 1661년에 루이 14세(*Louis XIV*, 1643~1715 재위)의 비서 겸 동양어 통역을 맡았던 동양학자 에르블로(*Barthélemy d'Herbelot*, 1625~1695)는 1692년에 고대 시리아어 강의를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5년 후에는 일종의 ‘동양학(*orientalisme*)’ 대사전 『동양 도서관(*Bibliothèque Orientale*)』을 간행하기도 했다. 동양어에 대한 이러한 관심과 폴베르 재상 시기(1665-1683)의 폴레주 드 프랑스에서 등장한 교수 제도는 이집트, 소아시아, 콘스탄티노플 등지의 고고학 원정대 파견으로 이어지면서 18~19세기의 동양어 문헌 연구 발전의 바탕이 되었다(*Macfie*, 2019: 27; *Herbelot*, 1697).

이처럼 프랑스에서 동양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갈 때, 폴베르는 1663년에 ‘작은 아카데미(*La Petite Académie*)’란 이름의 연구 단체를 설립했다.² 초기에 루이 14세를 위해 비문을 세우고 유적을 분류하던 아카데미는 역사학과 고고학으로 관심을 돌렸고, 18세기에 명성을 쌓게 되었다. 특히, 1786년 12월 22일의 규정으로 역사 연구에 큰 비중을 두게 된 아카데미는 ① 언어, 그중에서도 동양어, 그리스어, 라틴어 연구, ② 고중세사와 연관된 모든 종류의 유적, 메달, 비문 연구, ③ 고대와 근대의 과학, 기술 공예 비교 연구 등에 전념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1795년부터 프랑스 학사원(*Institut de France*)에 통합된 아카데미는 시기(이집트와 메소포아미아의 고대부터 아랍 무슬림(*arabo-musulmane*) 정복을 거쳐 근대 인도와 중국까지)와 지역(지중해 남쪽과 동쪽에서부터 극동까지)에 따라 동양학 분과의 전문가들을 모았다. 결국, 1816년에 이르러 아카데미의 명칭이 금석학·문학 아카데미

² ‘작은 아카데미’라는 명칭 이외에도, 1816년의 공식적인 설립 이전에 ‘금석학·메달 왕립 아카데미(*Académie Royale des Inscriptions et Médailles*)’, ‘금석학·문학 아카데미(*Académie Royale des Inscriptions et Belles-Lettres*)’, ‘문학·예술계 과학·예술 국립 연구소(*Institut National des Sciences et des Arts, Classe de Littérature et Beaux-arts*)’, ‘고대 역사·문학계 과학·예술 국립 연구소(*Institut National des Sciences et des Arts, Classe d'histoire et Littérature Anciennes*)’ 등으로 불리기도 했다.

(Académie des Inscriptions et Belles-Lettres)로 바뀌었다(AIB, 2021a; AIB, 2021e).

이러한 상황에서, 동양어 교육에 관심이 많았던 정치가 라캄날(Joseph Lakanal, 1762~1845)은 1795년에 동양어 특수 학교(L'École Spéciale des Langues Orientales)를 파리 국립도서관 내에 설치했다. 당시의 교육은 외교적·정치적·상업적 유용성에 기여할 수 있는 생생한 동양어 교육을 목표로 삼았다. 그래서 아랍어(문학, 일상어), 터키어, 크림 타타르어, 페르시아어, 말레이어 등이 주요 교과목으로 개설되었다. 19세기에 들어와서는 교육 대상 언어가 정기적으로 확대되었고, 끌베르가 1669년에 설립한 청년언어학교(École des Jeunes de Langues)와 통합한 동양어 특수 학교는 동방 언어(les langues du Levant)의 통역을 본격적으로 양성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Nusimovici, 2021).

다음으로 19세기 전반에 과학적인 동양학을 제창한 아시아 학회(Société Asiatique)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샹폴리옹(Jean-François Champollion)이 고대 이집트의 상형 문자를 해독한 1822년에 설립된 아시아 학회의 초대 회장은 남작 실베스트르 드 싸씨(Antoine-Isaac Silvestre de Sacy, 1758~1838)였고, 서기는 아벨-레무자(Jean-Pierre Abel-Rémusat, 1788~1832)였다.³ 초기 회원들 중에는 샹폴리옹과 인도 연구자 뷔르누프(Eugène Burnouf) 등이 있었다(AIB, 2021d). 유럽이 아시아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판단했던 학회의 목적은 동양어를 장려하고, 동양학자들(orientalistes)의 연구 성과를 출판하고, 매달 열리는 토론회를 통해 프랑스어권 학문 공동체를 결집하는 데에 있었다. 그래서 현지 연구를 통한 발굴 및 유적 복원, 번역(아랍어, 페르시아어, 힌디어, 산스크리트어 등) 및 문서 해독, 각종 언어 비교 연구 등이 과학적이고 학제적인 동양학을 제창하던 시대 분위기와 맞물려 진행되었다. 그리고 연구 대상 지역은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가면서 지중해 남부 및 동부에서부터 마그레브(Maghreb)⁴를 거쳐 극동까지 확장되었다.⁵ 이처럼, 아시아 학회(Société Asiatique)의 역사에는 과학적인 동양학(orientalisme scientifique)

³ 1829년 4월 15일의 칙령으로 비준되었다.

⁴ 북아프리카의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에 걸친 지역.

⁵ 기타 관련 연구자들로는 인도 전문가 가르생 드 따씨(Joseph Héliodore Garcin de Tassy), 페르시아어·터키어·아랍어 전문가 위아르(Clément Huart), 아시리아 전문가 쉘츠(Friedrich Eduard Schulz) 등을 들 수 있다.

의 역사가 반영되어 있었고, 19세기 초에 문헌학 중심의 학문 조류(潮流)에서 창설된 학회는 곧이어 역사학, 지리학, 고고학, 문학, 종교사, 사회학 등의 영역으로 눈길을 돌리게 되었다(AIB, 2021b). 아울러, 프랑스의 아시아 학회는 서구 동양학 연구의 모델이 되었는데, 1824년에 창설된 런던의 왕립 아시아 학회(Royal Asiatic Society)는 파리의 아시아 학회와 거의 유사한 규정을 채택하고 있었다. 그리고 1842년에는 미국 동양 학회(American Oriental Society)와 독일 동양 학회(Deutsche Morgenländische Gesellschaft)가 그 뒤를 따랐다(AIB, 2021d). 아울러, 초기에 동양어 문법, 사전, 번역에 주력했던 아시아 학회가 동양학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1822년에 창간한 프랑스어 출판물 『아시아 저널(*Le Journal Asiatique*)』(연 2회 발간)은 켄드어(zend), 그루지아어, 데바나가리어(dévanāgarī), 싱할라어(cinghalais), 만주-몽골어, 중국어 등의 활자를 국내의 인쇄업자들에게 유포시켰을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여전히 간행되고 있다. 현존하는 프랑스어 정기 간행물 중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는 이 학회지는 국립과학연구센터(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의 지원으로 출판 중이고, 출판 언어는 프랑스어 이외에도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가 가능하다(AIB, 2021c; AIB, 2021d).

그리고 19세기 중반부터는 ‘해외 프랑스 연구원 네트워크(Réseau des Écoles Françaises à l’Étranger)’가 연결되기 시작했다. 우선 프랑스 아테네 연구원(École Française d’Athènes)이 1846년에 설립되어 고대 그리스의 언어와 역사를 연구하게 되었다. 이후에 보불전쟁(1870~1871)에서 패배한 프랑스는 실추한 국가의 영향력을 ‘프랑스의 문화적 발현(Le rayonnement culturel de la France)’으로 회복한다는 목표를 내세워 대외 문화 정책에 착수했다. 그래서 프랑스어의 교육과 보급을 목표로 하는 ‘알리앙스 프랑세즈’(Alliance Française)와 이문화(異文化)를 연구하는 학술·문화 기관 설립이 더욱 촉진되었다(大宮朋子, 2008). 이러한 취지에서 1873년에 설립된 프랑스 로마 연구원(École Française de Rome)의 주요 연구 주제는 고대 로마의 고고학 및 역사학 분야였다. 아울러 프랑스 카이로 동양 고고학 연구원(Institut Français d’Archéologie Orientale du Caire)은 1880년에 창설되어 고대 이집트 지역의 고고학, 역사학, 문헌학 등을 다루었다(Gras et Poncet, 2015). 그리고 이렇게 프랑스의 해외 연구 기관이 곳곳에 등장하던 흐름 속에서 프랑스 극동 연구원(É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은 19세기 말부터 서서히 아시아의 극동에서 그

출현을 예고하고 있었다.⁶

2.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의 등장과 EFEO의 설립

EFEO의 설립에는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의등장이 결정적인 배경으로 작용했다. 19세기 중반부터 선교의 자유와 통상을 목적으로 베트남에 접근하기 시작한 프랑스는 1860년대에 남부 지역을 점령한 후 식민 지배권을 중부와 북부로 확대해 나가고자 했다. 결국, 1883년 8월 25일 체결된 아르망(Harmand) 조약에 의해 베트남은 프랑스의 보호국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아르망 조약의 내용은 1884년 6월 6일 체결된 빠뜨노트르(Patenôtre) 조약에 의해 약간의 수정이 가해졌는데, 1945년 베트남이 독립할 때까지 양국의 관계를 결정하는 기본적인 방침으로 계승되었다(윤대영 외, 2013: 26-27).

이후 1885년의 청불 조약 체결로 이제 프랑스는 대외적으로 누구의 도전도 받지 않고 베트남에서 절대적 권한을 행사하게 되었다(윤대영 외, 2013: 27). 프랑스는 제일 먼저 점령한 남부의 코친차이나(Cochinchina)는 직할 식민지로, 그리고 중부의 안남(Annam)과 북부의 톤킨(Tonkin)은 보호령으로 만들어 식민지 베트남을 통치했다. 코친차이나에는 안남과 톤킨이 프랑스의 통치 아래 들어간 1880년대 중반에 이미 독자적 기반이 닦여 있었다. 그래서 프랑스는 베트남을 하나로 묶지 않고 삼분해서 통치했다. 코친차이나 총독은 본국 식민지성의 지시를 받았고, 안남과 톤킨의 고등 주차관(résident supérieur)은 외무성 관할 아래 놓였다. 1887년에는 이 세 지역과 보호국 캄보디아는 인도차이나 연방(Union Indochinoise)이 되어 식민지성의 관할이 되었고, 총독이 이 연방을 통치하게 되었다. 이듬해에는 북부의 하노이와 하이 폰(Hải Phòng), 그리고 중부의 다 낭(Đà Nẵng)이 각각 톤킨과 안남에서 분리되어 총독이 직접 관할하는 지역으로 바뀌었다. 또한 1893년에는 보호령 라오스, 1900년에는 조차지 광주만(廣州灣)이 인도차이나 연방에 추가되면서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의 근간이 완성되었다(윤대영 외,

⁶ 이후 1920년에는 마드리드에 예술 연구원(Casa de Velázquez)이 설립되어, 해외 프랑스 연구원 네트워크는 총 5개 기관으로 구성되었다.

2013: 27, 150).

이러한 상황에서 프랑스 인도학 연구자들의 동향은 주목할 만하다. 이 연구자들에게 19세기 말은 ‘동아시아(Asie Orientale)’ 관련 연구의 구상과 방법을 새롭게 모색하는 시기였다. 이전의 연구자들은 고문서에서 인도의 지식을 “끄집어내는” 데에만 만족하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의 연구자들은 어떤 민족의 과거를 확실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반영하고 과거에서 메아리치는” 현재를 우선 깊이 파고들어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차츰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반성과 인식은 특히 인도 연구자들 사이에서 명확히 드러났는데, 비교 신화학과 베다 해석에 매몰된 연구에 실망했기 때문이다(EFEO, 1921: 1).

그런데 “고대인이 상상한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편은 빠르고 쉬운 방법이었지만, 땅에서 걷는 쪽은 느리고 힘이 들게 마련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현실을 연구하는 것은 영혼의 무모한 사색과는 차원이 다른 무언가를 요구했다. 예를 들면, 언어학자와 민족지학자의 끈기 있는 관찰, 종교적·사회적 사실에 대한 미세한 분석, 형체가 있는 유적에 대한 주의 깊은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연구 도구로서는 이론보다 고고학자의 곡괭이, 인류학자의 컴퍼스, 사진사의 대물렌즈, 각인(刻印) 업자의 솔 등이 중요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의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설 기관의 지속적인 지원과 조직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래서 언어학자 브레알(Michel Bréal, 1832~1915)과 문헌학자 바르트(Auguste Barth, 1834~1916) 및 세나르(Émile Senart, 1847~1928) 등과 같은 인도 연구자들은 아테네, 로마, 카이로에 이미 설립된 해외 프랑스 연구원을 모델로 샹데르나고르에도 비슷한 성격의 연구 기관을 수립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문제는 지속적인 예산 확보에 의한 조직적인 연구 수행이었는데, 프랑스 인도학 연구자들의 제안을 받아들인 사람은 바로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최초의 민간인 총독(1897~1902 재임)으로 1931년에 대통령이 된 두메르였다. EFEO의 창설은 당시 식민지 아시아에서 유럽 열강들과 정치, 경제, 학문 영역 등에서 경쟁하면서 “굴욕적인 상황”에 놓여 있던 프랑스에게 일종의 치유책이었다(EFEO, 1908: 314; EFEO, 1921: 2; Clémentin-Ojha et Manguin, 2001: 19).

결국 EFEO는 총독 두메르의 결정과 제안으로 1898년 12월 15일에 창설되어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로 파견된 ‘인도차이나 상주 고고학 조사단(Mission

Archéologique Permanente en Indo-Chine)’에서 유래했다. 이 과정에서 영국과 네덜란드가 식민지 현지에서 설립한 연구 기관들도 EFEO의 모델이 되었다. 이후 1900년 1월 20일에 현재의 이름으로 개칭된 본원은 사이공에서 공식 개원했고, 그 이듬해 본부를 새로운 총독부의 중심지 하노이로 옮기면서 1901년 2월 26일에 대통령 루베(Émile Loubet)의 공식 승인을 받게 되었다(Gouverneur Général de l’Indo-chine, 1898; Lorin, 2013: 108; Clémentin-Ojha et Manguin, 2001: 8, 16).

프랑스 식민 정부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아시아 연구를 위해 베트남에 설립한 기관의 명칭 ‘É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베트남에서는 Viện Viễn Đông Bác Cổ, 즉 遠東博古院)이란 표현에서, 프랑스어 ‘에콜(École)’은 통상적인 의미의 ‘학교’가 아니라 ‘연구 기관’을 의미한다(Pacific Affaires, 1952: 292). 중국에서는 ‘EFEO’가 ‘국립원동학원(國立遠東學院)’, 일본에서는 ‘국립극동학원(國立極東學院)’으로 번역되고 있다. 한국도 이와 같은 번역 명칭을 사용해 왔으나, 1995년부터는 프랑스 ‘국립극동연구원(國立極東研究院)’으로 번역하여 부르고 있다.⁷ 한국에서 ‘국립극동연구원’이란 명칭은 이 기관의 출판물을 활용하고 있는 소수의 불교 학자나 동남아시아 전문가들에게 알려져 있을 뿐이며, 대부분의 연구자들에게는 여전히 낯선 이름이다(Bouchez, 1995: 175).⁸

EFEO의 주요 임무는 ① 고고학 탐사, ② 필사본 수집, ③ 유적 보존, ④ 소수 민족 민족지 목록 작성, ⑤ 언어 유산 연구, ⑥ 인도에서부터 일본에 이르는 아시아의 문명 역사 연구 등이었다. 아울러, 인도, 동남아시아 그리고 동아시아(Asie Orientale, 예를 들면 중국, 일본, 한국) 인문사회과학의 고등 연구와 연구자 양성에 기여하는 것도 고려의 대상이었다(EFEO, 2021a). 다른 한편, 프랑스가 진출한 식민지 인도차이나(현재의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에서는 정치적 지배와 경제적 착취라는 목적과 동시에 문화적 관심이 있었던 점도 특징이다. 프랑스는 인도차이나의 문화를 자신의 학술과 과학의 힘으로 해명하는 것도 사명으로 생각해서 인도차이나 각지의 문화유산을 조사하기 위해 학술 조사대를 꾸준히 파견했다.

⁷ ‘극동(Extrême-Orient)’이라는 단어는 인도와 동남아뿐만 동북아까지 포함하는 아시아 지역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중동 지방은 제외된다.

⁸ 현재 EFEO의 한국 분원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에 자리 잡고 있지만, 활동은 미약하다.

그러면, 프랑스 ‘동양학’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인도차이나에 설립된 EFEO는 어떠한 조직과 활동으로 이러한 임무와 사명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나갔을까?

III. 1898~1954년 시기 EFEO의 활동

우선, 본국과 연계된 조직적인 움직임을 살펴보도록 하자. EFEO는 인도차이나 총독부의 관할에 있었는데, 학술적으로는 프랑스 본국의 공교육성(公敎育省) 산하의 금석학·문학 아카데미의 관리 아래에 있었다. 그리고 인도차이나 총독부의 직속 기관으로서 큰 권한을 가졌던 EFEO는 자신이 경영하거나 관리하는 기관들⁹과 식민지 현지에서 협력하는 보조 기관들 이외에도 끌레주 드 프랑스, 금석학·문학 아카데미 등과 같은 본국의 연구 기관에 연계되어 있었다. 예를 들면, EFEO의 피노(Louis Finot) 원장은 1907년부터 프랑스 학교에 개설된 인도차이나 역사문화학 강의를 통해 인도차이나 현지의 연구 및 활동 성과를 소개하면서 프랑스와 외국 지성들을 EFEO와 연결시키는 역할을 맡았다. 그리고 금석학·문학 아카데미는 6년 임기의 원장 후보자들을 물색하면서 EFEO의 상임 또는 비상임 회원들에게 소개했고, 임시 회원들의 1년 임기 갱신도 제안할 수 있었다. 아울러, 금석학·문학 아카데미는 매년 EFEO의 활동 내역을 보고 받았고, 격려 차원에서 상을 수여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했다(EFEO, 1921: 402; Finot, 1908: 221; Clémentin-Ojha et Manguin, 2001: 8).

창립 초기에 총독부의 구상에 충실했던 EFEO는 주로 고고학적 발굴, 필사본이나 비문 수집, 유물 보존 등과 관련된 작업을 진행하면서 인도차이나 문화유산의 목록 작성과 보호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 후 연구 분야는 역사학, 종교학, 언어학, 문학, 예술사, 민족지학 등의 분야로 확대되었다. 아울러 EFEO는 학제적이고 비교 연구와 관련된 연구자들(고고학, 역사학, 인류학, 문헌학, 종교학 전공자들)

⁹ 예를 들면, 1922년 4월 13일의 법령으로 프놈펜 팔리 연구소(École de Pâli de Phnom-Pen)는 EFEO의 관리를 받게 되었다.

을 통해 아시아에 접근했다.¹⁰

연구 영역은 인도에서 동남아 전체를 아우르면서 극동의 중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에까지 미쳤는데, 역사 전개에서 ‘인도화’ 혹은 ‘중국화’의 과정을 거친 지역과 사회를 고려해야 했기 때문이다. 특히 프랑스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인도 차이나 지역 중에서 베트남은 중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캄보디아와 라오스는 주로 인도의 영향을 받은 나라들이었다. 그러므로 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인도에 대한 관심을 동시에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EFEO는 중국학과 인도학을 아우르면서 이 두 문화권 사이의 상호작용과 관계를 밝혀내는 데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EFEO, 2021b; 金永鍵, 1934).

그리고 20세기 초부터 아시아의 새로운 ‘역내 지역’이 등장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05년부터 1907년 사이에 ‘중앙아시아(Asie Centrale)’가 아시아의 ‘역내 지역’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예를 들면, 중앙아시아의 인도 불교 관련 문헌들, 카슈가르(현재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있는 현급 도시) 북쪽의 세 석굴(중국 명칭은 삼산동(三山洞)과 테구르만(Tegurman) 유적, 중앙아시아와 동남아 도서부 사이에 있는 몬크메르족의 중개자 역할 등을 조명하는 연구들이 나타났다(Lévi, 1905; Pelliot, 1906; Schmidt, 1907~1908). 그리고 1912년부터 중앙아시아의 참고문헌이 BEFEO에 별도로 게재되기 시작했는데, 이후 1927년에는 ‘북아시아(Asie Septentrionale)’ 연구를 위한 참고문헌이 아시아의 또 다른 ‘역내 지역’을 소개하는 차원에서 채택되었다(EFEO, 1912; EFEO, 1913; EFEO, 1927). 아울러, 1951년에는 아시아의 환경, 즉 열대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아시아의 인간 문명과 지리가 관심사로 떠오르기 시작했다(Gourou, 1951).¹¹

다음으로, 금석학·문학 아카데미는 EFEO에 소속된 연구자들이 아테네, 로마, 카이로에 있는 해외 프랑스 연구원들의 사례를 따라 현지 기관 및 연구자들과 밀접하게 접촉하면서 생생한 현장 연구에 매진하도록 권장했다. 이 연구자들은 자신들이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현지에 거주해야 했으며, 공공 기관이나 대학,

¹⁰ 이하의 표 3과 표 4의 내용 참조.

¹¹ 동남아시아를 하나의 지역으로 인식하려는 시도는 1950년대 말부터 나타났는데, 이러한 인식의 근거는 인도에서 동남아로 전파된 불교 예술이었다(Dupont, 1959).

표 1 1898~1954년 시기 역대 EFEO 원장의 이력

취임 혹은 재임 기간	성명, 학력, 연구 영역 및 활동
1898. 12. 30.~1904. 12. 31.	피노(Louis Finot, 1864~1935)
	국립고문서학교(1884~1888)
	동양학, 고고학, 인도차이나 금석학
	폴레주 드 프랑스와 협력(1920~1930)
	금석학·문학 아카데미의 회원
1905. 1. 1.~1907. 10. 31.	푸세르(Alfred Foucher, 1865~1952)
	고등사범학교(École Normale Supérieure, 1885년 입학)
	예술사, 인류학, 고고학
	고등연구실용학교와 협력
1908. 11. 1.~1920. 1. 10	매트르(Claude Eugène Maitre, 1876~1925)
	앙리 4세 고등학교(Lycée Henri-IV)
	고등사범학교
	예술사
	기메 박물관(Musée Guimet) 관리
1920. 12. 2.~1926. 11. 11.	피노
1926. 11. 12.~1929. 1. 24.	오루쑈(Léonard Arousseau, 1888~1929)
	국립동양어학교(École Nationale des Langues Orientales Vivantes)
	고등연구실용학교
	문헌학
1929. 1. 25.~1929. 9. 1.	피노; 임시 원장
1929. 9. 2.~1947. 3. 18.	쾨데스(George Coedès, 1886~1969)
	고등연구실용학교
	역사학, 고고학, 인도차이나 금석학
	금석학·문학 아카데미와 네덜란드 예술·과학 왕립 아카데미(Koninklijke Nederlandse Akademie van Wetenschappen)의 회원
1947. 3. 19.~1949. 6. 18.	레비(Paul Lévy, 1909~1998, 사이공 출생)
	인류학
	고등연구실용학교와 협력
1950. 7. 28.~1956. 7. 29.	말르레(Louis Malleret, 1901~1970)
	고등사범학교
	인류학, 고고학

출처: EFEO, 2002: 29-31, 105-107, 113-116, 171-172, 190-192, 281-283.

연구소와 같은 현지의 기관과 협력해서 활동해야 했다. 만일 연구자가 현지에 영주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가능한 한 현지에서 정기적으로 장기간 체류해야 했다. 이처럼, 회원들이 연구 지역의 현장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EFEO는 동시대의 아시아 세계와 관련 있는 문제들까지도 다룰 수 있었다(EFEO, 2021b; Bouchez 1995: 175).

표 1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식민지 시기에 EFEO의 원장을 역임한 사람들은 초기에 EFEO의 설립을 주장한 인도 관련 연구자들보다는 한 세대 정도 후배 세대였다. 그리고 역대 원장 중에는 앙리 4세 고등학교, 루이 르 그랑 등의 명문 중등 교육기관을 거쳐 국립고문서학교, 고등사범학교, 국립동양어학교, 고등연구실용학교 등의 명문 고등 교육 기관을 졸업한 경우가 적지 않다. 아울러, 이들의 전공은 동양학 일반, 고고학, 역사학, 문헌학, 예술사, 인류학 등으로 다양한 편이었다. 또한 재임 중이나 은퇴 후에는 폴레주 드 프랑스, 금석학·문학 아카데미, 고등연구실용학교 등과 같은 프랑스의 전통적인 ‘동양학’ 교육 및 연구 기관과 협력하는 활동에 매진했다. 아울러, 원장들의 연구 영역을 살펴보면, 원래 인도학 전공이었던 피노는 캄보디아학, 푸세르는 인도학, 매트르는 일본학, 오루쑈는 베트남학, 쉐데스는 캄보디아학, 레비는 베트남학, 말르레는 베트남학 등이었다. 현지에서 베트남학(3명)과 캄보디아학(2명)을 연구하는 원장들이 다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2에 의하면, 1898-1954년 사이에 EFEO에서 근무한 총 50명의 연구원 중에서, 18명이 캄보디아 전문가, 14명이 베트남 전문가,¹² 9명이 중국 전문가, 4명이 인도 전문가, 3명이 라오스 전문가, 2명이 일본 전문가, 1명이 인도네시아 전문가였다.¹³ 연구 현장에서 생을 마감한 연구원들도 모두 15명이었는데, 캄보디아의 시엠립(3명), 프놈펜(2명), 바이욘(1명), 베트남의 하노이(2명), 후에(1명), 사이공(1명), 빈 롱(1명), 태국의 방콕(1명), 라오스의 루앙프라방(1명),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1명), 일본의 도쿄(1명)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하노이에서 태어난 연

¹² 까바롱, 빠르망피에르, 까디에르, 끌레, 뤼스, 브자씨에르, 뒤랑 등은 참파 관련 연구도 병행했다.

¹³ 1900년 당시에 3명에 불과했던 상임 연구원의 수는 100년 후에 42명까지 늘었다(Clémentin-Ojha et Manguin, 2001: 9).

표 2 1898~1954년 시기의 EFEO 연구원들

시기	이름(생몰년, 사망지)	분야
1898~1900	1° 까바퐁(Antoine Cabaton, 1863~1942)	베트남
1899~1911	2° 뽈리오(Paul Pelliot, 1878~1945)	중국
1900~1949	3° 빠르망띠에르(Henri Parmentier, 1871~1949[프놈펜])	베트남
1900~1916	4° 꼬마이오(Jean Commaille, 1868~1916[시엠립])	캄보디아
1901~1914	5° 위베르(Édouard Huber, 1879~1914[빈 룡])	중국
1901~1904	6° 까르뽀(Charles Carpeaux, 1870~1904[사이공])	캄보디아
1901~1902	7° 바리그 드 풍파니유(Gérard Barrigue de Fontanieu)	인도
1904~1905	8° 칸(Gaston Cahen, 1877~?)	중국
1905~1908	9° 블로끄(Jules Bloch, 1880~1953); 명예 회원(1939)	인도
1907~1922	10° 뽈리(Noël Péri, 1865~1922[하노이])	일본
1907~1911	11° 메이봉(Charles Maybon, 1872~1926)	중국
1908~1920	12° 마스뽈로(Henri Maspero, 1883~1945); 명예 회원(1939)	중국
1908~1910	13° 샤씨뉴(Étienne Chassigneux, 1875~1967)	베트남
1910~1912	14° 드 맥끄뎀(Jean de Mecquenem, 1883~1939[바이론])	캄보디아
1913~1914	15° 드마쉬르(Georges Demasur, 1887~1915)	캄보디아
1917	16° 부데(Paul Boudet, 1889~1948); 통신원(1933)	베트남
1918~1920	17° 까디에르(Léopold Cadière, 1869~1955[후예]); 명예 회원(1948)	베트남
1919~1937	18° 마르샬(Henri Marchal, 1876~1970[시엠립])	캄보디아
1919	19° 바뽈르(Charles Batteur, 1880~1932); 파견 공무원(1921~1932)	베트남
1919~1924	20° 드미에빌(Paul Demiéville, 1894~1979); 통신원(1929)	중국
1920~1945	21° 고루브(Victor Goloubew, 1878~1945[하노이])	캄보디아
1922~1925 1936~1941	22° 까르펠레스(Suzanne Karpelès, 1890~1968); 통신원(1926~1936)	캄보디아
1924~1926	23° 로브깡(Charles Robequain, 1897~1963)	베트남
1925~1936	24° 롱베르토(Léon Fombertaux, 1871~1936)	캄보디아
1925~1927	25° 르베롱(Paul Revéron, 1890~?)	캄보디아
1926~1928	26° 오부앵(Élie Aubouin, 1894~1981)	일본
1926~1936	27° 가스빠르돈느(Émile Gaspardone, 1895[베이징]~1982[도쿄])	베트남
1927~1953	28° 끌레(Jean-Yves Claeys, 1896~1979)	베트남
1927~1946	29° 뮈스(Paul Mus, Bourges, 1902~1969)	베트남
1931~1935	30° 트루베(Georges Alexandre Trouvé, 1902~1935[시엠립])	캄보디아

표 2 1898~1954년 시기의 EFEO 연구원들(계속)

시기	이름(생몰년, 사망지)	분야
1934~1951	31° 모제르(Henri Mauger, 1903~?)	캄보디아
1935~1966	32° 브자씨에르(Louis Bezacier, 1906~1966)	베트남
1935	33° 라지스께(Jacques Lagisquet, Nice, 1903~?); 파견 공무원(파견 공무원)	캄보디아
1936~1950	34° 뒤뵙(Pierre Dupont, 1908~1955[방콕])	캄보디아
1936~1945	35° 글레즈(Maurice Glaize, 1886~1964)	캄보디아
1939	36° 응우옌 반 후옌(Nguyễn Văn Huyền, 1908~1975); 파견 공무원(1940~1945)	베트남
1941~1950 1949~1950	37° 슈타인(Rolf Alfred Stein, 1911-Paris, 1999); 파견 공무원(1946~1948); 통신원(1948)	중국
1947~1961	38° 티에리-베르나르(Solange Thierry-Bernard, 1921~?)	캄보디아
1947~1957	39° 뒤랑(Maurice Durand, 1914[하노이]~1966)	베트남
1947~1950	40° 뽀레-마스페로(Éveline Porée-Maspero, 1906~1992)	캄보디아
1949~1966	41° 다매(Louis-Charles Damais, 1911~1966[자카르타])	인도네시아
1949~1955	42° 부아쉴리에(Jean Boisselier, 1912~1996)	캄보디아
1949~1950	43° 제르네(Jacques Gernet, 1921~?)	중국
1950~1980	44° 모레상(Guy Moréchand, 1923~2002)	베트남
1950~1954	45° 데이디에(Henri Deydier, 1922~1954[루앙프라방])	라오스
1950~1953	46° 에르부에(Yves Hervouet, 1921~1999)	중국
1951~1978	47° 아르생보(Charles Archambault, 1921~2001)	라오스
1951~1953	48° 그로스리에르(Bernard Philippe Groslier, 1926~1986[프놈펜] 2); CNRS의 파견 공무원(1958~1975)	캄보디아
1952~1979	49° 비야르(Roger Billard, 1922~2000)	인도
1953~1966	50° 라퐁(Pierre-Bernard Lafont, 1926~2008)	라오스

출처: EFEO, 2002: 32-33, 38-39, 93-100, 107-113, 117-136, 138-145, 165-170, 172-183, 186-188, 192-194, 196-197, 199-201, 211-213, 227-244, 283-286.

어학자 뒤랑의 부친(Gustave Durand, 1888~1960)은 프랑스의 프로방스(Provence) 출신이었고, 모친(Nguyễn Thị Bình, 1903~1956)은 하이 풍의 끼엔 안(Kiến An) 출신이었다(Ban Tu Thư, 2021).

다음으로, BEFEO의 1901~1954년 당시의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캄보디아 관련 118편, 베트남 관련 116편, 중국 관련 51편, 참파 관련 42편, 인도 관련 27

표 3 1901~1954년 시기의 나라별 연구 성과

나라	연구 내용
캄보디아	1° 풍습과 축제(프놈펜), 장례; 2° 언어(전사[傳寫], 접사[接詞]); 3° 필사본과 비문; 4° 역사(고대, 부남[扶南], 수진랍, 크메르 제국의 지도, 자야바르만 2세, 수리아바르만 1세, 우다야디타바르만 1세, 자야바르만 7세); 5° 고고학(유적 및 목록, 석비, 부조, 도상[圖像], 선사 고고학, 앙코르 와트 및 앙코르 톰의 유적, 바레이, 장식품, 태국 동부의 캄보디아 유적, 저부조[低浮彫], 비문, 링가, 시바상); 6° 건축과 박물관; 7° 인드라바르만 시기의 예술; 8° 불교(사원[정지], 반야바라밀다 불상, 바이온 사원, 사리탑); 9° 쿨렌산과 데바라자 의식; 10° 라마야나; 11° 서부의 원주민
베트남	1° 통킹(북부) 사람들; 2° 발굴(비엔 호아, 팡 짜, 팡 빈, 떼이 닌)과 고고학(동 허이의 신석기 시대, 비엔 호아의 거석 유적, 북부 및 중북부의 청동기 시대[동 썬 문화], 호아 빈과 박썬의 고대 유적, 썬 떼이), 굴착기; 3° 소수민족(언어, 모이, 썬 떼이의 므엥, 통킹의 로로, 팡 빈, 묘족, 흑타이, 백타이, 만[mán]의 민담, Tsa Khmu, 모이 자라이, 끈 뚝, 비엔 호아, 반 메 투옛, 여성, 파이의 문학, 축제)과 민족지(중부); 4° 민속학, 민간 인류학, 관습, 성(姓); 5° 역사(왕조 연대표, 고대 통킹과 레 왕조의 무덤, 동고, 안남도호부, 리 왕조[문묘], 평오대고(平吳大誥), 응우옌 코친차이나와 화교, 17세기 영국의 상사(商社), 응우옌 왕조의 황릉, 자 룡 황제)와 역사 자료 번역(『국조형률(國朝刑律)』, 『역조헌장유지(歷朝憲章類誌)』, 『흥정월사통감강목(欽定越史通鑑綱目)』); 6° 언어(은어, 로강[Rivière Claire; Sông Lô]의 구어, 순수 베트남어 및 한자어, 음성학, 방언, 대명사); 7° 지리(사파, 홍 가이, 박 닌 [루이 러우], 타인 호아, 팡 빈, 동 허이, 끈 뚝, 빈 딘, 빈 룡, 코친차이나의 지명); 8° 문학; 9° 주조업; 10° 팡 빈의 신앙, 통킹의 민간 신앙과 의례·귀신·축제, 미신, 장례식 기도, 혼백 및 영혼; 11° 불교(기원-13세기, 동 꼬 사원, 의례, 불상[하노이]); 12° 후예의 비문, 불교, 미약(媚藥) 및 부족; 12° 썬 떼이의 사원; 13° 수공업 연장; 14° 건축; 15° 기술
중국	1° 역사(고대 사회, 당나라[일반, 수학], 남조(南朝), 명나라, 외교)와 역사 자료(러시아 소재 중국 자료, 『고일총서(古逸叢書)』, 『구구소한지도(九九消寒之圖)』, 장서가·금석학자 육심원(陸心源)); 2° 언어(전사, 고대어, 해남도); 3° 계업(繼業); 4° 백련교; 5° 소수민족(로로, 운남의 티베트·버마족); 6° 관습과 민속학; 7° 양주(揚州)의 중산층; 8° 문학; 9° 간지; 10° 운남(박물관, 범자탑[梵字塔], 민속학); 11° 불교(돈황, 바라[婆羅], 『미란다왕문경(彌蘭陀王問經)』, 선불교); 12° 법; 13° 고고학(비문, 황태자의 무덤, 기와); 14° 선박(삼판, 정크선); 15° 북경 원인(猿人); 16° 소[牛] 관련 조각; 17° 네스토리리우스파의 동(銅) 인장 및 부적
참파	1° 문자; 2° 참인의 종교와 건축; 3° 사 후인의 비문·텍스트·유적, 동 즈엥, 팡 빈, 푸 옌, 푸 이 호아, 판 랑푸 푸이], 판두랑가, 팡 남(미 썬, 짜 끼에우), 팡 빈, 비엔 호아, 팡 짜, 포 클 온 가라이, 포 나가르; 4° 화장; 5° 왕들의 보물, 다 낭 박물관, 후예의 조각; 6° 묘지
인도	1° 간다라의 지리; 2° 인도 관련 중국 자료; 3° 베다와 힌두교; 4° 불교(문헌, 역사, 팔리어 텍스트, 미술, 불상, 귀자모(鬼子母), 석가모니의 여인들, 소승 불교의 논장); 5° 모헨조다로의 예술; 6° 언어(산스크리트어, 힌디어); 7° 아소카왕; 8° 태양족의 전설; 9° 문학(시파의 탄생)

표 3 1901~1954년 시기의 나라별 연구 성과(계속)

나라	연구 내용
라오스	1° 고고학(유물, 신석기, 도끼 주형); 2° 불교(왓 푸 사원의 석비); 3° 죽은 듯한 도시 사이퐁(Say-fong); 4° 비문과 석비; 5° 위앙짠(Vieng-Chan)의 봉헌물, 장례; 6° 민족지학, 부족, 소수민족(백타이족, 축제); 7° 문학(일반, 라마야나); 8° 지리(루앙프라방); 9° 역사(서부의 정치사 및 종교사); 10° 불교와 브라만교의 도상
태국	1° 언어(음성학, 전사); 2° 팔리어 문헌(아유타야 시기, 역사 자료); 3° 민족의 비문과 고대 정착지의 예술; 4° 수코타이 시기의 문서; 5° 우화(개미); 6° 고고학(삼발이); 7° 불상; 8° 청동 주물
인도네시아	1° 스리비자야의 비문; 2° 자바의 건축; 3° 보로부두르 사원; 4° 사일렌드라; 5° 발리
일본	1° 불교(『출삼장기집(出三藏記集)』, 논장 번역); 2° 문학; 3° 언어(로마자 표기); 4° 힌두교 이야기; 5° 오페라 극장; 6° 불교의 논장 번역; 7° 유구의 죽음 표상
미얀마	1° 지리; 2° 파간 왕조; 3° 비문; 4° 불교; 5° 건축
티베트	1° 의서(醫書); 2° 필사본; 3° 보살상; 4° 어원 연구; 5° 역사 지리와 조상 전설; 6° 서적
몽골	북
스리랑카	불교

편, 라오스 관련 26편, 태국 관련 15편, 인도네시아 관련 11편, 일본 관련 10편, 미얀마 관련 7편, 티베트 관련 6편, 스리랑카 관련 1편, 몽골 관련 1편 등이다. 초기부터 40년 동안은 베트남 연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1943년부터 캄보디아 연구의 비중이 베트남 연구의 비중을 앞지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1944~1950년 시기와 1953년에는 BEFEO가 정간되었고 1943년에 게재가 중단되었던 베트남 연구 성과가 1951년에서야 다시 게재되기 시작했는데, 1940년 9월 일본군의 인도차이나 진주, 1945년 9월 베트남민주공화국의 출현, 그리고 1946~1954년 시기 제1차 인도차이나전쟁 등으로 인해 정치적 상황이 극도로 불안했던 상황의 여파로 보인다(Malleret, 1951: 7).

나라별로 차지하던 연구 비중에 따라 그 내용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그리고 캄보디아와 베트남에 이어 세 번째 연구 대상이었던 중국은 EFEO가 있던 하노이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었으므로, EFEO의 중국 관련 연구도 촉진되었다. 사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프랑스 학계가 중국에 파견한 학술 조사단들은 모두 하노이 본부를 기지로 삼아 활동했다(Bouchez, 1995: 178).

또한 표 4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EFEO의 지역 연구는 아시아와 유럽, 환

표 4 1901~1954년 시기 EFEO의 지역 연구

지역	연구 내용
아시아와 유럽	
아시아와 유럽(1편)	유럽,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중국, 한국, 누벨-칼레도니, 아메리카, 베트남, 참파, 캄보디아 등지의 의례
동남아 도서부와 유라시아(1편)	고고학
아시아 역내 지역 간의 교류와 환경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1편)	몬크메르족의 기원과 활동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1편)	비문
열대 계절풍 아시아(1편)	인간 문명과 지리
인도차이나와 외부 세계	
인도차이나(12편)	고고학, 민족지학, 동물학, 선사 시대, 소승 불교, 무슬림, 소수민족의 언어
인도차이나, 동남아 도서부, 중국(1편)	상상의 동물
인도차이나와 참파(1편)	고고학
인도차이나와 말레이반도(1편)	민족지학
인도차이나와 인도(4편)	인도차이나 내 인도 '식민지'의 기원; 참파 짜 껀에우의 불교 관련 유적 및 유물, 전설; 바이온 사원
인도차이나와 인도네시아(2편)	민족지학, 다양한 상호 접근; 고고학(자바와 참파, 인도차이나의 시바, 바이온)
인도차이나와 티베트(1편)	고고학(삼발이)
인도차이나와 유럽(1편)	민족지학, 반지, 기타 악세서리
인도차이나와 네덜란드 동인도회사(1편)	교류
베트남과 외부 세계	
베트남과 캄보디아(4편)	쩌우 독과 시암만 사이의 빈 떼 운하
베트남과 라오스(2편)	소수민족의 의례; 가옥의 건축과 장식
베트남, 태국, 포르투갈(1편)	대포의 명문(銘文)
베트남과 미얀마(3편)	파간의 아난다 사원과 베트남의 고고학; 버마의 베트남 파견 사절단
베트남, 티베트, 미얀마(1편)	비교 언어
베트남, 코카서스, 중국(1편)	중국의 선사 시대와 통킹 및 코카서스의 유물 비교
베트남과 중국(2편)	중국의 베트남 정복; 하노이 박물관의 중국 비문
베트남과 일본(1편)	『남표기(南漂記)』 번역
참파와 외부 세계	
참파와 인도(1편)	의례

표 4 1901~1954년 시기 EFEO의 지역 연구(계속)

지역	연구 내용
참파와 베트남(1편)	비문
참파와 캄보디아(4편)	비문 목록, 왕조 표, 불상
참파와 중국(1편)	동 즈영의 중국식 불교 양식
캄보디아와 외부 세계	
캄보디아와 아랍(1편)	캄보디아의 아랍어 비문
캄보디아와 중국(1편)	부남과 중국의 대외 관계
라오스와 외부 세계	
라오스와 중국(1편)	쩐 닌과 운남의 부싯돌
태국과 외부 세계	
태국과 캄보디아(1편)	고고학, 도상학, 11-12세기
태국과 덴마크(1편)	의례와 농업
미얀마와 외부세계	
미얀마와 중국(1편)	버마로 파견된 중국의 사절
말레이반도와 외부 세계	
말레이반도(1편)	개팔
말레이반도와 태국(1편)	고고학, 불상
인도와 외부 세계	
인도와 중앙아시아(1편)	불교
인도와 동남아시아 (캄보디아, 태국, 말레이반도)(1편)	고고학
인도와 그리스(1편)	불교의 전파
인도와 로마(1편)	퐁디세리의 로마 유적
인도와 투르판(1편)	불교
인도와 중국(3편)	승려들의 순례, 여행, 교류
중앙아시아와 외부 세계	
중앙아시아(1편)	개팔
스키타이와 그리스(1편)	헤로도토스의 『역사』 59장에 보이는 포세이돈에 대한 스키타이식 이름
중앙아시아와 동북아시아(2편)	삼판(杉板)의 유래와 의미; 정원
중국과 외부 세계	
중국, 티베트, 일본(1편)	약사유리광여래(藥師瑠璃光如來) 이야기
중국과 티베트(1편)	사천과 운남의 티베트 루트
중국과 일본(3편)	관음 신앙; 중국 내의 일본 고고학단; 중국 승려 감진(鑑眞)과 나라 시대의 일본

경으로 보는 아시아와 역내 지역 간의 교류, 인도차이나와 외부 세계(참파·동남아 도서부·인도·티베트·중국·유럽), 베트남과 외부 세계(캄보디아·라오스·태국·포르투갈·미얀마·코카서스·중국·일본), 참파와 외부 세계(인도·베트남·캄보디아·인도네시아·중국), 캄보디아와 외부 세계(아랍·중국), 라오스와 중국, 태국과 캄보디아 및 덴마크, 미얀마와 중국, 말레이반도와 태국, 인도와 외부 세계(중앙아시아·동남아시아·그리스·로마·투르판·중국), 중앙아시아와 그리스, 중국과 외부 세계(티베트·일본) 등과 같은 점점 다양한 지역을 포괄하면서 확장되었다. 이러한 지역적 접근은 아시아 내의 지역(region)을 조망하면서 관계와 비교의 관점을 제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두드러진 분야는 고고학, 민족지학, 불교학, 국제관계학 등의 분야였다.

EFEO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아시아 연구자들의 역할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01년에 하노이로 이전한 EFEO의 정원에서 현지의 베트남 협력자들이 용수(龍樹)의 영혼에 제사를 올릴 수 있었고, 1906년 당시 민족주의자 판 쩐 쩌(Phan Chu Trinh, 1872~1926)이 인도차이나 총독에게 개혁을 요청한 서한이 BEFEO에 게재되었던 경우를 본다면(Clémentin-Ojha 외, 2001: 12-13; EFEO, 1907: 155), 식민지 연구 기관 EFEO는 현지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어느 정도의 ‘관용(tolérance)’을 인정했던 것 같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베트남어의 음운론 및 문법이나 민속에 관한 기초 연구에 종사했던 연구자들은 프랑스인이건 베트남인이건 간에 대부분이 EFEO의 연구원이었거나 EFEO와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이었다(Bouchez, 1995: 177-178).

BEFEO에도 현지인들의 다양한 연구 성과가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교육자 도 텃(Đỗ Thận)은 이미 1907년에 신데렐라 이야기의 베트남판을 소개했다(Đỗ, 1907). 16세였던 1908년부터 EFEO에서 일하게 된 팜 꾸인(Phạm Quỳnh, 1892~1945)은 6년 후에 베트남의 조사(弔詞) 2편을 번역하여 게재할 수 있었다(Phạm, 1914).¹⁴ 그리고 1927년에 보병 전투 부대의 지휘관 루(Henri Roux)는 퉁킹 주재 비서관 쩌

¹⁴ 이후에 그는 베트남 국어의 발달에 크게 기여한 *Nam Phong*(南風)의 편집장을 거쳐 로마와 프랑스의 고전을 번역한 ‘태서사조총서(泰西思潮叢書)’를 발간했다(金永鍵, 1936). 1921년 당시 현지 협력자들의 사진 참조(EFEO, 1921a: Pl. IV).

반 쭈(Trần Văn Chu)와 협력하여 라이 쩌우(Lai Châu) 제4군구의 산악 지대 소수민족을 조사하여 발표한 경우도 있었다(Roux, 1927).

이후 1930~1940년대에 문학 연구자 응우옌 반 또(Nguyễn Văn Tố, 1889-1947)는 BEFEO의 추모 전기(傳記)와 서평 부분을 담당하기도 했는데(Nguyễn, 1933b; Nguyễn, 1936; Nguyễn, 1937; Nguyễn, 1938b; Nguyễn, 1938c; Nguyễn, 1940), 번안, 번역, 연구 보조 등을 넘어 보다 전문적인 연구로 확장되는 사례도 살펴볼 수 있다. 1930년대에 역사학자 쩌 반 갑(Trần Văn Giáp, 1902~1973)은 불교의 역사와 의례를 다루었다(Trần, 1932; Trần, 1939). 인류학자 응우옌 반 코안(Nguyễn Văn Khoan, 1890~1975)은 1930년대 초반 베트남 톤킨 델타의 신앙에 보이는 혼백 관념을 탐구했고, 1930년대 말에 역사학자 겸 민족학자 응우옌 반 후옌(Nguyễn Văn Huyền, 1905~1975)은 소수민족의 귀신, 노래, 춤 등을 연구했다(Nguyễn, 1933a; Kleinen, 2014; Nguyễn, 1938a; Nguyễn, 1939).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 기간 중에는 한학을 공부한 후 1913년부터 EFEO에서 근무한 쩌 함 떤(Trần Hàm Tấn, 1887~1957)의 문묘(文廟)에 대한 연구 성과가 소개되었고, 역사와 지리에 조예가 깊었던 응우옌 티에우 러우(Nguyễn Thiệu Lâu, 1916~1967)는 빈 딘(Bình Định)의 1839년 농업 개혁과 꽝 빈(Quảng Bình)의 사망률에 대해 조명하기도 했다(Trần, 1951; Durand, 1960: 179; Nguyễn, 1951a; Nguyễn, 1951b). 또한, 황족 출신이면서 EFEO의 후에(Huế) 통신원이었던 응꾸어(Ứng Quả, 1905~1951)는 레(Lê) 왕조의 개국 공신 응우옌 짜이(Nguyễn Trãi)의 15세기 자료 「평오대고(平吳大誥)」를 분석해 냈다(Ứng Quả, 1952; Malleret, 1952: 327).

이처럼, 수십 년 동안 EFEO는 서구, 특히 유럽의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파트너들과도 무수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는데, 아시아의 연구자들과 1년이나 그 이상 공동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다(EFEO, 2021b). 이 동료들은 EFEO가 축적한 풍부한 문서 자료들에 접근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었는데, 1930년 당시 경성(京城)의 프랑스 영사관에서 근무하던 한인 청년 김영건(金永鍵, 1910년생)은 1931년부터 1940년까지 EFEO에서 근무하며 일본학 도서관의 사서뿐만 아니라 노엘 빠리의 뒤를 이어 인도차이나와 일본 및 조선과의 관계나 조선의 대외 관계사 연구를 수행하기도 했다(Youn, 2016).

마지막으로 EFEO의 기타 활동으로는 도서관 설치와 박물관 창설 등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EFEO 내에는 원래 설립 당시부터 도서관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베트남뿐만 아니라 주변 아시아 연구에 필수적인 주요 자료들을 수집해서 정리해 두었다(EFEO, 1921a: Pl. II). 그리고 고고학 연구에 매진하던 피노 원장은 프놈펜 팔리어 고등 연구원(École Supérieure de Pâli de Phnom Penh)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연구원 카르펠레스(Suzanne Karpeless)를 통해 프놈펜 캄보디아 왕립 도서관(Bibliothèque Royale du Cambodge à Pnom Penh)의 창설에 기여했다. 이 도서관은 현재의 캄보디아 국립도서관(Bibliothèque Nationale du Cambodge)인데, 1924년 12월 24일에 개관한 캄보디아 왕립 도서관(Bibliothèque Royale du Cambodge)의 당시 장서는 2,879종이었으며, 절반은 프랑스어 서적이었다(BNF, 2022).

그리고 1899년부터 특히 다 냥을 포함한 팡 남(Quảng Nam) 지역에서 수많은 참파의 조각들이 발견되기 시작했다. 현재 다 냥의 꾸언 하이 찌우(Quận Hải Châu)의 한강(Sông Hàn, 즉 Hàn Giang [汗江]) 주변에 위치한 참파 조각 박물관은 EFEO의 고고학부 소속이었던 빠르망띠에르(Henri Parmentier)가 1902년에 참파의 조각 및 예술에 특화된 고대 박물관을 구상하고 제안한 데서 기원한다. 1915년에 설립된 이 박물관의 이름은 고고학자이자 건축가였던 주창자의 이름을 따라 앙리 빠르망띠에 박물관(Musée Henri Parmentier)으로 정해졌고, 1919년에 첫 번째 건물의 낙성식이 개최되었다.¹⁵ 참파의 전통적인 양식 이외에도 프랑스 건축가 드르발(Deleval)과 오끌레르(Auclair)가 고안한 건물은 1920년대와 1930년대에 발굴된 유물들을 전시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확장되었다.¹⁶

아울리, 하노이 홍하(紅河) 옆의 프랑스 상관(商館)과 영사관(領館)에 가까운 EFEO의 건물에 위치한 루이 피노 박물관(Musée Louis Finot)은 프랑스 건축가 에브라르(Ernest Hébrard)가 1932년에 건설했다. 이 건물은 인도차이나 절충 양식(창시자는 에브라르)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1936년 7월 당시 이 박물관에는 인도차이나를 비롯하여 아프가니스탄, 인도, 티베트[서장(西藏)], 중국(中國), 조선(朝鮮), 일본(日本) 등의 역사적 보물들이 찬란하게 진열되어 있었다고 한다(金永鍵, 1936;

¹⁵ 박물관이 개관하기 전에 이곳은 “조각의 정원(Jardin de la Sculpture)”이란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었다.

¹⁶ 이 박물관에서 1920년대 후반부터 경력을 쌓은 보 팡 꾸언(Võ Quang Quỳnh, 1910~1936)은 1930년부터 빠르망띠에르의 비서 자격으로 유물을 관리했고, 이 공로를 인정한 EFEO는 그를 정규 직원으로 채용했다(EFEO, 1936).

EFEO, 1921a: Pl. III; Pacific Affairs, 1952: 293). 그리고 프놈펜(Phnom Penh)의 알베르 쉼로 박물관(Musée Albert Saraut, 1919, 현재 캄보디아의 국립박물관), 후에(Huế)의 카이 딘 박물관(Musée Khai Dinh, 1923, 현재 황실 유물 박물관), 사이공의 블랑샤르 드 라 브로스 박물관(Musée Blanchard de la Brosse, 1928, 현재 호찌민 시의 역사박물관) 등이 마련되었다(EFEO, 2021a; EFEO, 1908: 314; O'Connor, 2000: 150).

IV. 맺음말

16세기부터 저술과 지도로 프랑스에게 등장하기 시작한 ‘아시아’는 17세 이래 선교사들의 활동으로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전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18세기 중반부터 일어난 산업혁명은 국가가 주도하는 ‘동진(東進)’ 정책을 점차 추동해 나갔다.

이러한 상황에 부응하기 위해 프랑스 근처의 동쪽 세계, 근동뿐만 아니라, 중동을 거쳐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인도, 동남아, 동북아를 포괄하는 지역에 대한 관심이 프랑스 내에서 높아졌다. 그래서 프랑스의 끌레주 드 프랑스, 금석학·문학 아카데미, 동양어 특수 학교, 아시아 학회 등과 같은 교육 및 연구 기관과 학회 등이 창설되었다. 아울러, 해외에서 프랑스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면서 해외 프랑스 연구원 네트워크가 아테네, 로마, 카이로 등지에서 조직되기 시작했는데, EFEO의 설립 배경은 바로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문화적 우월감을 지닌 채로 EFEO에 온 프랑스 역사가자들은 특히 실증적이고 비판적인 인식론적 방법으로 구전된 자료들을 불신하면서 선사 시대의 고고학을 중시하는 관점을 갖고 있었다. 이 연구자들은 엄격한 과학적인 고증 작업을 통해 고대 문헌들을 분석하는 분야에서 현지의 유교 지식인들을 크게 앞섰다. 프랑스 연구자들은 중국 점령 이전에 민족 국가가 베트남에 존재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국가의 영역 확대와 상고 시대 기원에 관한 문제는 전설처럼 과장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EFEO는 이미 베트남의 영토로 흡수된 참파 문명과 캄보디아의 앙코르 문명을 ‘재발견’하고 베트남에 대한 이 두 문명의 상대적인 우위를 강조하면서 인도차이나 문명의 주재자(主宰者)로 자처

하게 되었다.

한편, EFEO는 전통적인 ‘동양학’의 관심을 바로 당시의 시대 배경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했다. 이 과정에서 EFEO는 기존의 연구 방법론을 재검토하고 본국과 긴밀하게 협조를 취하면서 전통적인 ‘동양학’의 연구 영역을 확장하고 과학적이면서도 현장감이 넘치는 연구에 매진하게 되었다. 그래서 EFEO의 원장들과 연구원들은 원래의 전공 영역뿐만 아니라 전공 지역 주변 세계까지 연구를 확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 결과,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관련 연구가 증가했고, 인도차이나 지역과 상호 교류하던 중국 및 인도에 대한 연구도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아시아의 ‘역내 지역’에 대한 인식이 나타나면서 중앙아시아, 북아시아, 계절풍 아시아란 개념이 등장했다. 또한, ‘식민학’이란 정치적, 사회적 환경 속에서도 베트남과 기타 아시아의 연구자들은 문학, 역사학, 민족지학, 관계사 등의 분야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남겼다.

1954년에 프랑스가 제1차 인도차이나전쟁에서 패배하면서, EFEO도 하노이를 떠나야 했다. EFEO는 1956년에 본원을 파리에 두게 되었고, 그 이후 조직을 계속 확대하여 현재 아시아 12개국에 18개의 센터와 본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현실적인 국제 정세의 변동과 ‘중공’의 성립 이후에 중국 관련 연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21세기부터는 인도 관련 연구도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EFEO는 여전히 과거에 가졌던 관심을 현재에도 이어 가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근처의 ‘동양’에서 인도,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혹은 북아시아)로 확장된 ‘아시아’를 이해하기 위해서 ‘아시아’ 전역에 걸쳐 있는 지역적 문화 현상에 여전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현재에도 EFEO는 아시아를 연구하는 지역적 관점의 테마 중에서도 인도에서 일본에 이르는 불교의 전파와 크메르 세계의 비문 연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1898~1954년 시기와 이후 EFEO의 활동은 아시아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첫째, 명확한 시대적 소명을 갖고 출발한 연구 기관 EFEO는 현장성을 줄곧 유지해 나갔다. 둘째, EFEO는 현지 파트너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아시아 내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갔다. 셋째, EFEO의 연구 주제는 하나의 국가에 머무르지 않고 주변의 외부 세계로 끊임없이 확장되는 과정을 현재에도 거치고 있다. 이러한 현장성, 파트너십, 확장성 등을 ‘우리’의 문제에 적용하기 위해

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 우선, 현재 한국 사회의 아시아 연구가 필요로 하는 시대적 소명은 무엇인가? 여기에서 도출된 시대적 소명이 아시아 현장에서 어떻게 이어져 나아가야 하는가? 다음으로, 아시아의 현지 파트너들과 어떻게 지속적인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넓혀 갈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우리’의 문제와 공유할 수 있는 아시아에 대한 연구 주제를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이와 같은 문제 제기에 기반하여 아시아를 다양한 방법으로 관통(貫通)하는 미래의 ‘통아시아’ 연구는 어떤 나라나 이 나라의 지방에 파편처럼 흩어져 있거나 매몰되어 있는 연구를 조화롭게 회통(會通)하여 아시아의 화합과 평화를 통해 통합(統合)을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욱 가치가 있다.

투고일: 2022년 2월 9일 | 심사일: 2022년 3월 12일 | 게재확정일: 2022년 4월 4일

참고문헌

- 권윤경. 2018. “프랑스 오리엔탈리즘과 극동(Extrême-Orient)의 탄생: 경성제국대학 프랑스어 도서관 속에 얹힌 제국 시대 지성사의 네트워크.” 『아시아리뷰』 7(2), 181-216.
- 金永鍵. 1932. “遠東博古學院とその近況.” 『史學研究』 第四卷 第一號, 125-135.
- _____. 1934. “東洋學史論.” 『青年朝鮮』 第1卷 第1號, 17-24.
- _____. 1936. “安南遊記 (一) 安南의 文壇 (上).” 『東亞日報』 (7월 1일). 7.
- _____. 1936. “安南遊記 (六) 安南의 古都.” 『東亞日報』 (7월 9일). 7.
- 윤대영·응우옌 반 킴·응우옌 마인 중. 2013. 『1862~1945, 한국과 베트남의 조우: 교류, 소통, 협력의 중층적 면모』. 이매진.
- 최병욱. 2016. 『동남아시아사: 전통시대』. 광주: 도서출판 산인.
- 大宮朋子(オオミヤ, トモコ). 2008. “極東フランス学院の研究: フランスの対外文化政策における学術・文化機関の役割.” 『政策研究大学院大学 博士(文化政策研究)』, 甲第17号, 02-27.
- AIB(Académie des Inscriptions et Belles-Lettres). 2021a. “Depuis 1816. L’Académie Contemporaine.” <https://www.aibl.fr/presentation/histoire-de-l-academie/depuis-1816/?lang=fr>(검색일: 2021. 10. 20.).
- _____. 2021b. “Histoire.” <https://www.aibl.fr/societe-asiatique/histoire/?lang=fr>(검색

- 일: 2021. 10. 20.).
- _____. 2021c. “Journal Asiatique.” <https://www.aibl.fr/societe-asiatique/publications-196/journal-asiatique/>(검색일: 2021. 10. 20.).
- _____. 2021d. “La Fondation de la Société Asiatique.” <https://www.aibl.fr/societe-asiatique/histoire/la-fondation-de-la-societe/?lang=fr>(검색일: 2021. 10. 20.).
- _____. 2021e. “Membres.” <https://www.aibl.fr/membres/?lang=fr>(검색일: 2021.10.20.).
- Ban Tu Thu. 2021. “Maurice Durand (1914-1966, 52 years old).” <https://holylandvietnamstudies.com/blog/maurice-durand/>(검색일: 2022. 1. 20.).
- BNF (Bibliothèque Nationale de la France). 2022. “Bibliothèque Royale du Cambodge.” https://data.bnf.fr/fr/12261033/bibliotheque_royale_du_cambodge/(검색일: 2022. 1. 20.).
- Boemus, Johann. 1547. *Recueil de Diverses Histoires Touchant les Situations de Toutes Régions & Pays*. Paris.
- Bouchez, Daniel. 1995. “프랑스 國立極東研究院의 事業.” 『亞細亞研究』 第94號, 175-189.
- Clémentin-Ojha, Catherine et Pierre-Yves Manguin. 2001. *Un Siècle pour l'Asie, l'É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1898-2000*. Paris, Les Éditions du Pacifique/É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 Compagnie de Jésus. 17세기 추정. *Royaume d'Annan Comprenant les Royaumes de Tumkin et de la Cochinchine*. Paris.
- Corvol, Pierre. 2010. “Un Nouveau Public au Collège de France.” *La Lettre du Collège de France* 29, juillet. <https://journals.openedition.org/lettre-cdf/883> (검색일: 2021. 10. 15.)
- Đỗ, Thận. 1907. “Une Version Annamite du Conte de Cendrillon.” *Bulletin de l'É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BEFEO)* 7(1-2), Janvier-Juin, 101-107.
- Dupont, Pierre. 1959. “Les Buddha Dits d'Amarāvātī en Asie du Sud-Est.” *BEFEO* 49(2), 631-636.
- Durand, Maurice. 1960. “Trần-Hàm-Tấn (1887-1957).” *BEFEO* 50(1), 178-181.
- EFEO. 1907. “Chronique.” *BEFEO* 7(1-2), 150-210.
- _____. 1908. “Documents Administratifs.” *BEFEO* 8(1-2), Janvier-Juin, 306-331.
- _____. 1912. “Bibliographie.” *BEFEO* 12(9), 148-154.
- _____. 1913. “Bibliographie.” *BEFEO* 13(7), 73-84.

- _____. 1921a. “L’É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depuis Son Origine jusqu’en 1920: Historique Général.” *BEFEO* 21(1), 1-41.
- _____. 1921b. “Organisation Scientifique,” *BEFEO* 21, 399-409.
- _____. 1927. “Bibliographie.” *BEFEO* 27, 380-396.
- _____. 1934. “Chronique.” *BEFEO* 34(2), 709-792.
- _____. 1936. “Võ-Quang-Quỳnh (1910-1936).” *BEFEO* 36(2), 657.
- _____. 2002. *Chercheurs d’Asie: Répertoire Biographique des Membres Scientifiques de l’É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1898-2002*. Paris, É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 _____. 2021a. “Historique.” <https://www.efeo.fr/base.php?code=7>(검색일: 2021. 9. 15.).
- _____. 2021b. “Vocation.” <https://www.efeo.fr/base.php?code=6>(검색일: 2021. 9. 15.).
- Finot, Louis. 1908. “Notes et Mélanges: Les Études Indochinoises.” *BEFEO* 8(1-2), Janvier-Juin, 221-233.
- Gourou, Pierre. 1951. “Civilisations et Géographie Humaine en Asie des Moussons.” *BEFEO* 44(2), 467-475.
- Gouverneur Général de l’Indo-chine. 1898. “Arrêté Portant Règlement pour la Mission Archéologique d’Indo-chine.” *Journal Officiel de l’Indo-chine Française*, 15 décembre.
- Gras, Michel et Olivier Poncet. 2015. *Construire l’Institution. L’École Française de Rome, 1873-1895*. Publications de l’École Française de Rome.
- Herbelot, Barthélemy d’. 1697. *Bibliothèque Orientale, ou Dictionnaire Universel*. Paris: Compagnie des Libraires.
- Kleinen, John. 2014. “Nguyễn Văn Khoan (1890–1975). An Odd Man out of Vietnamese Anthropology?” *Moussons* 24 (January), 79-90.
- Lawson, Philip. 2013. *The East India Company: A History*. London & New York: Routledge.
- Le Gendre, Jean. 1550. *Tiers Livre de la Fleur et Mer des Hystoires Plus Célèbres et Mémorables, Advenuestant en l’Asie et Affricque qu’en l’Europe*. Paris.
- Lévi, Sylvain. 1905. “Notes Chinoises sur l’Inde. V. Quelques Documents sur le Bouddhisme Indien dans l’Asie Centrale (première partie).” *BEFEO* 5(3-4), Juillet-Décembre, 253-305.
- Lorin, Amaury. 2013. *Une Ascension en République: Paul Doumer (1857-1932)*

- d'Aurillac à l'Élysée*, Paris: Dalloz.
- Macfie, A. L. 2019. *Orientalism: A Reader*. Edinburgh University Press.
- Malleret, Louis. 1951. "Avertissement." *BEFEO* 45(1), 7-8.
- _____. 1952. "Ung-Quà (1905-1951)." *BEFEO* 46(1), 327-328.
- Mole, Gregory. 2016. *Privileging Commerce: The Compagnie des Indes and the Politics of Trade in Old Regime France*. ProQuest Dissertations Publishing.
- Münster, Sebastian. 1552. *La Table de la Région Orientale, Comprenant les Dernières Terres & Royaumes d'Asie*. [지도]
- Nguyễn, Thiệu Lâu. 1951a. "La Réforme Agraire de 1839 dans le Bình-Định." *BEFEO* 45(1), 119-129.
- _____. 1951b. "La Mortalité dans le Quảng-Bình." *BEFEO* 45(1), 131-143.
- Nguyễn, Văn Huyền. 1938a. "Contribution à l'Étude d'un Génie Tutélaire Annamite, Li-Phuc-Man." *BEFEO* 38(1), 1-110.
- _____. 1939. "Les Chants et les Danses d'Ai-lao aux Fêtes de Phù-Đông (Bắc-ninh)." *BEFEO* 39(2), 153-196.
- Nguyễn Văn Khoan. 1933a. "Le Repêchage de l'Âme, avec une Note sur les Hón et les Phách d'après les Croyances Tonkinoises Actuelles." *BEFEO* 33(1), 11-34.
- Nguyễn, Văn Tố. 1933b. "Le R. P. Max de Pirey (1867-1932)." *BEFEO* 33(1), 560-561.
- _____. 1936. "Charles-Georges Cordier (1872-1936)." *BEFEO* 36(2), 652-657.
- _____. 1937. "Jean-Henri-Eugène Peyssonnaud (1888-1937)." *BEFEO* 37, 704-706.
- _____. 1938b. "Hội Khai-Trí-Tiến-Đức Khởi-Thảo: *Việt-Nam Tự-Điển*. Fasc. XXXVI-XXXVII, *thèo-trạng*. Hanoi: Imprimerie Trung-bắc." *BEFEO* 38(2), 327.
- _____. 1938c. "Đào-Duy-Anh: Pháp-Việt Từ-Điển 法越辭典 (*chủ thêm chữ Hán*). *Dictionnaire Français Annamite (avec transcription en caractères chinois des termes sino-annamites)*. Fasc. V, H-Malmener. Hanoi, Lê-Văn-Tân, 1938, pp. 761-1000. (Quan-Hải Tùng-Thư, Huế)." *BEFEO* 38(2), 328.
- _____. 1940. "André-Robert d'Argence (1867-1940)." *BEFEO* 40(2), 507-508.
- Nolin, Jean-Baptiste. 1657-1699 [추정]. *Asie Divisée en Ces Princip*. s. n. [지도]
- Nusimovici, Michel. 2021. "Les Écoles de l'An III." <http://www.ens-rennes.fr/histoire/les-ecoles-de-l-an-iii-106752.kjsp>(검색일: 2021. 10. 02.).
- Pacific Affairs. 1952. "L'École Française d'Extreme-Orient." *Pacific Affairs* 25(3), Sep., 292-296.

- Pelliot, P. 1906. "Notes sur l'Asie Centrale." *BEFEO* 6(3-4), Juillet-Décembre, 255-269.
- Phạm, Quỳnh. 1914. "Deux Oraisons Funèbres en Annamite, Publiées et Traduites." *BEFEO* 14(5), 41-55.
- Rhodes, Alexandre de. 1651. *Dictionarium Annamiticum Lusitanum et Latinum ope Sacrae Congregationis de Propaganda Fide in Lucem Editum ab Alexandro de Rhodis E Societate Jesu, Ejusdem Sacra Congregationis Missionario Apostolico*, Romae, Typis, & sumptibus ejusdem Sacr. Congreg.
- _____. 1854. *Voyages et Missions du Père Alexandre de Rhodes de la Compagnie de Jésus, en la Chine et autres royaumes de l'Orient*, Nouvelle édition, Paris.
- Roux, Henri. 1927. "Les Tsa Khmu (en collaboration avec M. Trần-Văn-Chu)." *BEFEO* 27, 169-222.
- Schmidt, P. W. 1907-1908. "Les Peuples Mon-Khmêr: Trait-d'union entre les Peuples de l'Asie Centrale et de l'Austronésie." *BEFEO* 7(3-4), Juillet-Décembre, 213-250, 8(1-2), Janvier-Juin, 1-35.
- Signot, Jacques. 1539. *La Division du Monde, Contenant la Déclaration des Provinces et Régions d'Asie, Europe et Afbrique*. Paris.
- Singaravélou, Pierre. 1999. *L'É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ou L'Institution des Marges (1898-1956): Essai d'Histoire Sociale et Politique de la Science Coloniale*, Paris: L'Harmattan.
- O'Connor, Stanley J. Nora A. Taylor, ed. 2000. *Studies in Southeast Asian Art: Essays in Honor of Stanley J. O'Connor*. SEAP Publications.
- Trần, Hàm Tấn. 1951. "Étude sur le Văn-Miếu de Hà-Nội (Temple de la Littérature)." *BEFEO* 45(1), 89-118.
- Trần, Văn Giáp. 1932. "Le Bouddhisme en Annam, des Origines au XIIIe Siècle." *BEFEO* 32(1), 191-268.
- _____. 1939. "Note sur la Bannière de l'Âme. À Propos d'une Cérémonie Bouddhique à la Mémoire des Victimes du « Phénix »." *BEFEO* 39(2), 224-272.
- Ứng Quả. 1952. "Un Texte Vietnamien du XV^e Siècle. Le « Bình Ngô Đại-Cáo 平吳大誥 »." *BEFEO* 46(1), 279-295.
- YOUN, Dae-yeong. 2016. "Between Korea and Vietnam: Kim Yung Kun's "Ever-Changing and Impermanent" Life." *Journal of Asian History* 50(2), 235-278.

Abstract

The Historical Dimension of French Asian Studies: EFEO's Origin and Research Activities

Dae-yeong Youn Seoul National University

What was the historical dimension of French Asian studies? The EFEO (É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was founded in 1900 with headquarters in Hanoi in what was then French Indochina. The EFEO's main mission was defined as archaeological exploration, collection of manuscripts, preservation of monuments, making lists of ethnic groups, linguistic studies, and the study of the history of all Asian civilizations, in particular from South Asia to Northeast Asia. This study examines EFEO's origin, mission, networks, organization, research activities and partnerships. Its achievement could help develop Asian studies emphasizing on 'Trans United Asia on the Move.'

Keywords | France, Asia, EFEO, Vietnam, Trans United Asia